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서언(4) 육조 혜능의 <금강경>구결을 고르다

<대승기신론>의 한역(漢譯)들과 영역(英譯)들 대장경 가운데 중요한 경전들은 두 번 이상 번역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대승기신론>이 그렇습니다. 6세기의 진제(眞諦) 스님이 해 놓은 것과 8세기 실차난타가 해 놓은 것, 두 개가 있는데요, 7세기에 살았던 원효 스님은 당연히 첫 번째 진제의 역본을 두고 여러 번 주석을 가했습니다. 지금은 소와 별기만 남아 있습니다.

영역은 나중 실차난타의 것이 먼저 되었습니다. 스즈키 다이세츠가 실차난타의 번역을 토대로 1900년에 처음 이 경전을 영역한 이후, 여러명이 영역에 손을 댔습니다. 지금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것은 하케다 요시토가 1967년대에 켈람비야 대학에서 출판한 것인데요, 대본부터 진제의 것을 택하는 등, 스즈키의 작업과 차별화하려고 여러 모로 애를 썼습니다. 스타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즈키가 <대승기신론>의 취지에 초점을 둔 개성적이고 자유로운 문체를 구사하는데 비해, 하케다는 경전의 '문자'에 보다 충실해 이색한 표현이나 불분명한 대목을 그냥 감수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스즈키의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다. 한역은 둘 다를 좋아하는데, 두 판본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부릴거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차와 어긋남이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여 <대승기신론>을 더 분명하고 풍부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선택한 구마라습의 <금강경>

이 이야기가 결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려는 <금강경>은 두 번도 아니고, 무려 여섯 번이나 다시, 거듭 번역되었습니다. 이 횟수가 이 경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관 반야의 대가인 에드워드 콘즈는 이렇게 찬탄하고 있습니다.

"반야 바라밀다 문헌은,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후 600년 사이에 걸쳐 인도에서 이루어진, 38개의 서로 다른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일본 티벳 몽고의 불교도들은 30세대에 걸친 판단으로 이 가운데서 둘을 골라냈습니다. 성스러운 중에도 가장 성스러운 둘,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둘 다 아마 기원후 4세기쯤에 성립된 듯합니다."

다. 처음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바즈라 체디카 파라미타 Vajra cchedika Prajnaparamita>, 즉 '벼락처럼 찢는 지혜의 완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중 것은 지혜의 완성의 심상, 핵심, 정수를 정식화하려는 시도로, 티벳의 라마시원 일본의 선방에까지 힘써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수지 독송하는 판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맨 처음에 번역한 것, 즉 A.D. 402년에 구마라습이 번

거칠고 불편한 글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럴 땐 참고 읽기도 하지만, 아차 책을 잘못 샀다 싶어 후회하게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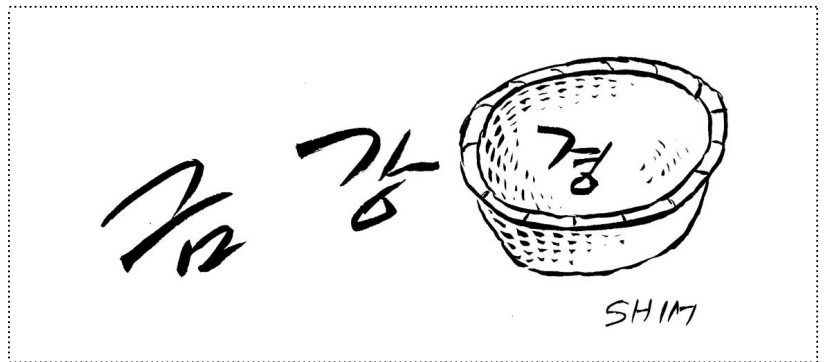
구마라습의 번역은 이방인인 중국어 독자를 우선 배려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정확성보다는 이해와 소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마라습은 번역의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어를 한 문으로 옮기는 것, 그것은 흡사 염마가 갖 난관을 위해 밥을 씹어 먹여 주는 일과 같

게 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불교는 이 구마라습의 번역 정신을 깊이 벤치마킹하고,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강경>의 五家解 가운데 단연 빛나는 육조 혜능의 구결

그레도 <금강경>은 읽기 힘듭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옛적 대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씹어 대중들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이해·소통에 초점 맞춘 시각적인 글



다. '아무리 음식이 기름져도 그것을 '소화'시킬 수 없다면 음식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금강경>을 중국인들에게 '소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맛과 풍미, 즉 경전의 정확성을 어느 정도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배려, 철저한 서비스 정신이 그의 번역을 대로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면 의미의 왜곡은 최소화하겠지만, 읽기에는 아무래도

다. 혜능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이미 800가에 이르는 해석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주석까지 합하면 한우충동(汗牛充棟), 그 불륨이 작은 도서관을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개장(開張) 다음에는 좌락(左落)이라, 그렇게 주석이 많아지면 또 골라내는 손이 개입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 다섯을 골랐습니다. 필자들은 삼립 부대사, 육조 혜능, 규봉 종

필, 아무도 친, 예장 종경으로, 각기 일세를 풍미한 선장(禪師)들입니다. 조선조의 건립 초기 합허득룡이라는 스님이 이 선전의 틀린 글자를 바로잡고 자신의 해설을 덧붙여 간행했는데, 이것이 지금 <금강경>의 유통 본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금강경요가해>입니다.

다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단연 육조 혜능의 구결(口訣)을 꼽습니다. 스님의 <금강경 구결>은 불교의 접근을 가로막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용어들을 배제하고, <금강경>의 취지를 우리네 '마음'의 실제와 구체적으로 연관된 지평 위에서 깨쳐주어 주고 있는 과시 걸작입니다.

이처럼 제 강의는 <금강경>을 두고, 불교 안과 밖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들, 때로는 모르는 이야기까지 풀어놓지만, 주석이 필요할 때는 육조 혜능 스님의 진철에 기대달라는 말씀을 미리 드려드립니다. 한 사람을 더 폭넓게 <금강경>의 취지를 격의의 시(時)로 부수어 나간 아무도 친을 꼽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늘어지고 지루하여 조는 분들이 많다 싶을 때, 가끔 그의 시를 불각사의 얼음조각처럼 등 뒤에 넣어 드려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금강경요가해>는 경서원에서 10년 전에 영인한 목판본입니다. 이 책을 발견하고는, 누가 집어갈까, 얼른 두 권을 샀습니다. 한 권에는 내키는 대로 밑줄과 노트가 그려져 있고, 다른 한 권은 고이 모셔 두었습니다. 아, 이 책을 꼭 구하려는 말씀은 아닙니다. 유용하기는 오히려 한글 번역이 붙은 <금강경요가해>일 것이니, 하나쯤, 가령 무비 스님의 <금강경요가해>를 구해 곁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자 따라...

⑦ 운허 스님의 '촛불'



조태호



운허 스님(1892-1980): 평북 정주 생. 30세에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 전국불교인대회(1926) 개최. 광동학원 설립, 동국역경원 설립, 한글대장경 간행의 초석 다지기에 크게 기여.

네터즌 교리문답

'백척간두진일보'의 참뜻은?

1. 큰스님들이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 숨은 뜻을 알고 싶습니다. (초학자)

답1: 백척간두는 오르기 힘든 깨달음의 경지를 말한다. 선어록에서 말하는 '고봉정상(高峰頂上)'과 같은 의미이다. 백척간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비록 깨달음의 경지에는 도달했지만, 그 경지에서 안주하고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깨달음의 세계를 체득한 것은 아니다. 이 경지까지도 초월하지 않으면 깨달음의 세계에 떨어져 죽게 된다. 깨달음의 경지를 초월한다는 것은 위가 없는 무상의 불도를 이루는 대승의 원력이다. 깨달음의 경지에 한계가 있다면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보살의 원력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의의식의 번뇌망명을 모두 텅 비워버렸을 때 일체의 모든 존재와 사방세계가 자기와 하나가 되는 만법일여(萬法一如)의 경지가 되는 것이다. 이 글은 <유문란>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인용. ('고봉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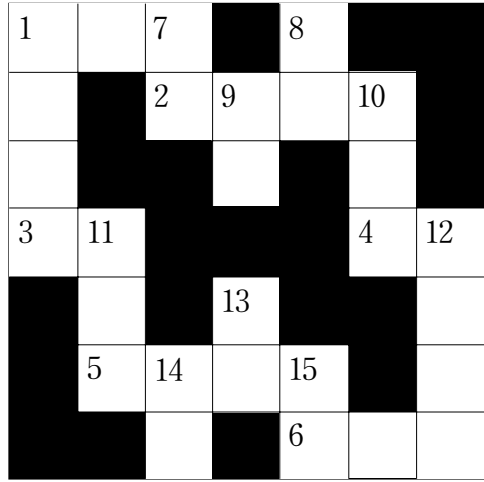
답2: (조당집)에서 장사경장 선사는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계승을 읊었다. "백 척의 긴 장대 끝에 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비록 깨달음을 얻었지만 진정한 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백 척의 긴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방세계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천길의 절벽에서 손을 놓듯 목숨을 걸고 구도의 의지를 표하는 것은 크게 일체의 자아(我相, 人相) 죽이고(大死一番) 참된 깨달음으로 되살아나게 됨을 말한다. (大死一番)

답3: 백척간두에서 한 발 내딛는 실천은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중생의 세계에 몸을 내던져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이끈다. 이렇게 될 때라야 제법과 하나되어 진리를 실현하는 불행(佛行)이 가능하다. ('불행수행')

답4: 공부해서 깨달은 바 있더라도(아공)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법집에서도 자유로운(법공) 대자유인, 즉 아공과 법공을 이룬 사방의 법계와 둘이 아닌 대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여기정답')

답5: 한호를 삼키고 진일보 하여 죽어야 진실로 크게 사는 도리를 체증하면, 허공에서 뼈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띠집주인')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 1. 말을 탄 행렬의 제일 앞에 선 사람, '일송정 푸른 숲은' 으로 시작하는 노래의 제목이기도 함 2. 쫓대 없이 남의 의견을 따라 움직임 3. 고마움을 표하는 인사 4. 아름다운 사람 5. 바른 학설을 굽히어 세상에 아첨함 6. 한 집이나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사람을 비유해 하는 말, 큰 들보.

정답은 26면에

1. 서산대사가 선종의 요긴한 지침을 모아 지은 책 7. 머느리의 한자어 8. 삼삼의 씨앗을 받아 재배한 것 9. 신라의 청소년 수행단체 화랑도의 구성원 10. 소금에 절인 통무에 소금물을 붓고 담근 것 11. 어머니의 사랑을 기린 고려 가요 12. 행위의 선악에 따라 상응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말 13.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나'가 없음을 뜻하는 말 14. 출신 학교에 따라 맺어지는 파벌 15.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